



# 제주 이혼율 전국 최고... 혼인율도 상위권

통계청 2월 인구동향 발표... 이혼율 1000명당 2.9건  
혼인율 5.5건... 세종에 이어 전국서 두번째로 높아

제주지역 이혼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2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제주의 조이혼율은 2.9건으로 강원(2.5건)과 인천·충북·충남·전남·경남(각 2.3건)을 제치고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조이혼율은 인구 1000명당 이혼건수를 말한다.

반면 조이혼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은 세종(1.8건), 서울(1.7건), 울산(1.4건) 순이었으며, 조이혼율이 가장 높은 제주와 가장 낮은 울산 간의 격차는 1.5건에 달했다.

제주는 2018년에도 조이혼율이 2.4건으로 인천과 함께 전국에서 가장 많은 건수를 기록했으며, 2017년 2.4건, 2016년 2.5건으로 매년 상위

권에 자리를 잡고 있다.

실제 대법원이 공개한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제주지법에 접수된 가사사건은 2015년 724건(합의 73건·단독 651건), 2016년 774건(합의 85건·단독 689건), 2017년 693건(합의 77건·단독 616건), 2018년 706건(합의 49건·단독 657건)으로 매년 700건대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제주지방법원은 늘어나는 가사사건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지난달 4일 가사과를 개소하고 본격 운영에 나서기도 했다. 가사와 신설로

제주지법에는 가사사건 전담판사가 1명에서 2명으로 늘어나고, 민사와 부속이 아닌 독립 부서로 운영된다. 가사과에서는 이혼을 비롯해 재산분할, 미성년자녀 양육권, 면접교섭권 등 가족 구성원간 분쟁을 전담한다.

한편 2018년 제주지역 조혼인율은 5.5건으로 세종(6.9건)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 다음으로 서울(5.4건), 충남·경기(각 5.2건), 인천(5.1건) 등이 뒤를 이었다.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지난 26일 제주도 인재개발원이 위치한 소방교육대에서 고압살수기를 이용한 해태상 청소 작업이 진행됐다. 송은범기자

## 40년 만에 목은 때 벗겨낸 해태상

고압살수기 이용해 물 청소  
소방교육대 정문 이전 예정

제주국제공항 입구를 지켰던 '해태상(像)'이 철거된 가운데 40여년 동안 쌓였던 묵은 때를 벗겨내는 작업이 이뤄졌다.

지난 26일 찾은 제주시 아라동 소방교육대에서는 고압살수기를 이용해 해태상에 대한 청소가 진행되고 있었다. 강력한 물줄기에 오랜 세월 쌓였던 이물질이 제거되면서 새하얀 해태상의 원래 모습이 드러났으며, 바닥에는 이물질이 가득 뒤덮여 있었다.

해태상은 제과업체인 해태제과가 1970년대 제주공항 앞에 기증한 것으로, 이후 해당 구간은 '해태동산'으로 도민들에게 알려졌다. 해태는

울고 그름을 가릴 줄 알고 화재나 재앙을 물리친다고 알려진 상상 속의 동물이다.

하지만 해태동산의 원래 이름이 '도령마루'였고, 제주4·3 당시 제주시 연동과 오라동, 도두동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본래 이름을 되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지난 1일 신산공원에서 열린 '4·3해원방사탐제'에 참석한 고희범 제주시장이 "해태상을 이전하고 4·3을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고, 마침내 지난 24일 중장비가 동원돼 철거됐다.

철거된 해태상은 청소 작업이 마무리되는대로 그 의미에 걸맞게 소방교육대 정문 양쪽에 세워질 예정이다. 송은범기자

## 무사증 입국 중국인에 취업 알선한 50대 집유

제주에서 무사증으로 입국한 중국인에게 불법으로 취업을 알선해 대가를 받은 5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모(5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서씨는 지난해 3월 6일부터 5월 27일까지 무사증으로 제주에 입국한 중국인 10명을 서귀포시의 한 마을 농가에 취업하도록 알선하고, 1인당 하루 1만원씩과 매달 이틀치 임금을 대가로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취업을 할 수 없는 외국인인 다수 관리하면서 범행을 저질러 성행과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범행 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인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다. 송은범기자

술취해 경찰관 폭행 40대 입건

서귀포경찰서는 28일 술에 취해 경찰관에게 욕을 하고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A씨(47)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5일 오전 1시10분쯤 서귀포시내에서 택시기사와 시비가 붙어 지구대를 찾아 행패를 부리다 경찰관이 귀가할 것을 권유하는 데 불만, 먹살을 잡고 밀치는 등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태윤기자

독자제보 750-2225



갑자기 찾아온 추위 평년보다 낮은 기온으로 쌀쌀한 날씨를 보인 가운데 지난 27일 서귀포시 마라도를 찾은 관광객들이 몸을 움츠린 채 걷고 있다. 강희만기자

## 제주 30일까지 최대 40mm 비 소식

오는 30일까지 제주에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됐다.

제주지방기상청은 "29일은 제주도 남쪽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흐리고 비가 오겠다"며 "비는 30일 오전까지 내린 뒤 구름 많은 날씨

를 보이겠다"고 예보했다.

30일 오전까지 예상 강수량은 10~40mm다.

29일 기온은 아침 최저 14~16℃, 낮 기온 19~21℃로 전날인 28일보다 2~3℃ 높겠다.

30일 역시 최저 16℃~최고 19℃로 일교차 없는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겠다.

한편 해상에는 29일 오후부터 30일 오전까지 바람이 9~14㎞로 점차 강하게 불고, 물결도 1.5~3m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돼 항해 및 조업하는 선박은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기상청은 당부했다. 송은범기자

## ‘장마철 틈타 슬쩍’... 환경오염행위 특별단속

서귀포시 장마 전후 실시

서귀포시는 우기 및 장마철을 틈탄 오염물질 무단방류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올해 8월까지 특별 감시·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장마기간을 전후해 3단계로 나눠 추진된다.

1단계는 5월말까지 환경오염 관리 취약 업소에 대한 협조문 발송 등 사

전홍보 및 계도 활동을 실시된다. 2단계는 6월~7월에 이뤄지며, 이 기간에는 특별기동 단속반을 구성해 폐수배출시설에 대한 집중 감시·단속을 실시하고 농공·공업단지 주변 하천 순찰을 강화할 계획이다. 끝으로 8월에 실시되는 3단계는 집중호우로 파손된 시설의 정상가동을 위해 시설을 조속히 복구하도록 유도하고 녹색환경센터 등과 연계해 기

술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단속에서 적발된 고의·상습적 위반 사업장의 경우 관련법규에 의거해 고발 조치를 하는 등 강력히 대처하고, 사후 관리 업소로 지정함은 물론 언론 등에 공개해 경각심을 고취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환경오염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단속도 중요하지만 배출시설 업주 및 관리인들의 관심과 지속적인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 제주 반려동물 페스티벌 ‘우리집 막둥이’

내달 4~5일 시민복지타운 광장  
러닝명·강현욱 훈련사 강연 등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5월 4일과 5일까지 이틀간 제주시민복지타운광장에서 '2019 제주 반려동물 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페스티벌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공동으로 주최하며 '우리집 막둥이'라는 주제로 가족으로서 반려동물의 가치와 펫마켓 문화의 확산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펫마켓은 애완동물을 뜻하는 펫(Pet)과 에티켓의 합성어로 애완동물을 기를 때 지켜야 할 공공예절을 말한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개막식을 시작으로 반려견과 함께 달리는 '러닝명'과 '개통령 강현욱 훈련사'의 강

연, 'UCC&사진 공모전', '반려인&반려견 명패리사회' 등이 진행된다. 특히 반려동물 전문업체 40여 곳이 참가해 사료, 용품, 의류 등의 대규모 할인행사와 이벤트를 실시하는 '반려동물 산업대전'도 개최된다.

이밖에도 반려동물 무료 건강상담, 동물등록서비스, 반려동물 상식 OX 퀴즈, 보물찾기 등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체험행사와 동물보호어린이 생생대화, 동물 관련 영화·방송 프로그램 상영, 가수 장필순과 함께 하는 야간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도 동물방역과(710-2143)로 문의하거나 축제 홈페이지(<https://www.jejuairs.com>)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고대모기자 bigroad@ihalla.com

본 광고는 사전심의필 2007-GN1-25-0147

**소리샘 보청기**  
제주시 삼도1동 507-3(2층)  
**TEL.753-5347**

←광양 한국병원→ **소리샘 보청기** →오라파출소 터미널 신제주→

잘 안들리십니까?

**소리샘 디지털 보청기**와 함께 하십시오.

① 소리샘 디지털 보청기는 미국 스타키와 마이크로텍사의 제품을 취급합니다.  
② 소리샘 디지털 보청기는 고객의 청력에 적합한 올바른 보청기 상담 및 A/S를 책임집니다.

■ 신경성, 노인성, 소음성 난청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무료 청력검사와 방문 상담 가능

● 직항 전세기 전문여행사 ●

**가자 일영투어**  
T.727-2277

◆일반여행인252호◆ 2억원 보증보험가입업

대만/야류/지우펀/소핀/단수이  
**4일 649,000원~**

일본 알렌루트 4일 4~5월 화.목출발  
**1,193,500원~**

제주 직항

대만 4일 899,000원~  
5월 3일 21시 45분경 출발

하노이/하롱베이  
6월 5일 899,000원~

제주 직항

말레이시아 관광 4박 5일  
쿠알라룸푸르/말라카/젠팅 5일  
화.목출발 799,000원~

두나라여행 쿠알라룸푸르/싱가폴 5일/6일  
999,000원~

말레이시아 골프 별도문의

홍콩/마카오 4일 5일 647,100원~  
홍콩 4일 547,100원~  
방콕/파타야 3박 5일  
매일출발 795,900원~

제주 직항

장가계/북경 or 상해 790,400원~  
백두산 서파/북파(서파) 비자대포함  
매일출발 538,200원~

제주 직항

일본 오사카, 고토 나라 고베 4일  
월.화.수.목.금.토.일  
796,600원~

제주 직항

북경  
430,400원~  
비자대포함

제주 직항

동경/하코네/요코하마  
897,400원~

제주 직항

대만/호이안/후에 5일  
2019년 상시출발  
쿠알라룸푸르 5일

가자 일영투어 공/통/사/항 왕복항공료, 호텔(2인1실), 전용차량료, 일정상의 식사, 관광지 입장료, 1억원여행자보험, 전쟁보험료, 관광진흥기금, 공금세, 직항 그 외 해외상품: 사이판, 싱가포르, 무안산하문, 장가계, 히니루, 호주, 시드니 등